

# '5·18 전도사' 故 서유진 선생 삶 돌아본다

윤상원기념사업회, 삶과 활동 정리한 '혁명에서 진화로' 출간

## 5·18 진상규명·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등 활동 담아 '공동체 강조' 갈등 심화되는 요즘 깊은 울림 남겨

5·18을 해외에 알린 세계적인 전도사, 5·18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헌신, 80년 미 '볼티모어 선' 신문에 게재된 광주 기사를 번역해 한국에 송고한 주인공...

故(故) 서유진 인권활동가(1942~2019). 그는 평생 5·18 진상규명과 역사적 자리매김을 위해 헌신했다. 최근 그의 삶과 활동을 정리한 유고집 '혁명에서 진화로-5·18 전도사, 서유진 아카이브'(오일순)가 나왔다. 윤상원 기념사업회가 기획을 하고 김동하 작가와 서일권 씨가 인터뷰와 대담자로 참여했다. 책에는 선생의 삶을 비롯해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행적, 아시아인권위원회 활동, 국내 대학과 연구소에서의 강연 등이 담겨 있다.

조계현 윤상원기념사업회 상임이사에 따르면 이번 유고집은 선생이 타계하기 전 기록을 남기자는 분들이 의기투합해 결실을 맺게 됐다.

전북 완주 출신인 선생의 성장기부터 자신의 아버지가 친일파라고 고백한 참회록, 백악관과 의회 등을 대

상으로 전개했던 유신반대 투쟁, 세계적인 석학 노엄 촘스키 교수 등과 의 인터뷰가 실려 있다.

김상윤윤상원기념사업회 고문은 "서유진 선생님께서 5·18의 가치를 뱉속 깊이 사랑하는 사람 본 적이 없다"며 "5·18의 가치에 대한 사랑이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객관화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세계운동사의 흐름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특성 속에서 '5월이 차지하고 있는 가치가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생처럼 확고하고 명쾌하게 정리하고 있는 사람이 없다"고 덧붙였다.

선생은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자 재미인권투쟁단체들



과 함께 인권 활동을 펼쳤다. 선생의 그는 "5·18은 내가 본격적으로 인권운동을 하면서 반정부인사가 된 계기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광주항쟁 당시 '볼티모어 선' 신문의 기자가 쓴 광주 관련 기사를 번역하고 이를 한국에 송고해 왜곡된 보도에 대항하기도 했다.

조계현 윤상원기념사업회 상임이사는 "선생은 군사 쿠데타에 항거했던 광주 5·18을 해외에 알린 세계적인 전도사일 뿐 아니라 아시아인권위원회와 관련된 일을 하면서 5·18기록유산을 유네스코에 등재하는데 헌신했던 분"이라고 말했다.

선생은 1992년 광주시민연대 활동을 시작으로 아시아인권위원회 관련 활동,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동티모르 벨로 주교 초청을 위한 현지방문 및 설외를 펼치기도 했다.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2018년 제12회 오월어머니상을 수상했다.

그는 인터뷰에서 더불어 잘 사는 법에 대해 강조했다. 세대, 성별, 지역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선생의 말은 적잖은 울림을 준다. "주변과 더불어 같이 가려는 건강한 정신을 가져야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보호받을 수 있어. 내가 인권운동을 국가를 위해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했을까? 아니야. 공동체가 유지되어야 나도 보호받기 때문에 그런 거야."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비아중·고등학교, 교육환경 개선 별관동 준공



비아고 교육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2층 건물 8개 교실로 구성된 별관동 준공식을 개최했다.

지난해 개교한 비아고는 1·2학년 각 8학급으로 구성됐다. 비아중이 비아고 건물에서 2·3학년 각 4학급씩 운영하고 있다.

비아고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본관동 한 건물에 공존하며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별관동을 만들었다. 별관동은 비아중 2학년 학생들이 졸업하는 2022학년도

까지 중학생들이 사용한다. 비아고 1·2학년 학생들은 본관동 건물에서 생활한다.

70년 역사의 광주 지역 유일 단설 사립중이었던 비아중이 비아고의 전신이다. 광산구 내 인문계고 부족으로 인한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문제 해소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학교법인 무양서원과 광주시교육청은 협의의 거쳐 비아중을 고등학교로 개편했다.

비아중은 2021학년도부터 신입생 배정을 받지 않았다. /김대성 기자 bigkim@

## 광주문화재단, 향토지리연구소와 사료 콘텐츠화 협약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황풍년·왼쪽)과 향토지리연구소(연구소장 김경수)는 최근 우리 지역의 사료를 콘텐츠화하기 위한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두 기관은 최근 광주문화재단에서 업무협약식을 갖고, 지역문화 관련 콘텐츠 개발을 위해 협력하고 지역학 연구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상호협력에 뜻을 모았다. 협약 내용은 '지역문화 관련 콘텐츠 개발 및 프로그램 협력 진행', '지역문화 관련 자료 공유', '지역학 연구 활성화를 위한 인적·물적 교류 및 지원' 등이다.

김경수 향토지리연구소장은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전남대 지리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한 뒤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학술부장, 국사편찬위원회 사료 조사위원을 역임했다. '영산강 삼백오십리', '광주의 땅 이야기'



등을 집필했으며 고문서 및 사료들을 분석해 '광주 최초의 것'들을 주제별로 정리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재단은이번 협약을 출발점으로 광주 최초 관련 사료들을 영상 콘텐츠화 하는 '광주 최초의 것찾아'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광주대 세무경영학과 송우성 학생 한국공인회계사회 표창 수상



광주대학교세무경영학과 송우성(사진)씨가 최근 전국 회계·세무분야 전공자 가운데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해 수상하는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표창장을 받았다.

이에 앞서 세무경영학과는 지난 2월 4학년 인지혜·김우영 학생이 한국세무사회가 시행하는 국가공인 자격시험에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해 회장상을 받았다. 두 학생은 (주)더존비즈온에 취업하는 성과로 이어졌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 전남도, 미세먼지 대응 '숲 속의 전남' 나무심기 행사



전남도가 미세먼지에 대응하고 숲속의 전남 만들기 7차년도 성공 추진을 위해 최근 여수 출산산단 일원에서 나무심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선 박형식 전남도 환경산림국장, 최무경 도의원, 양재승 여수시

산림조합장, 동부지역본부 직원 등 70여 명이 참석해 미세먼지 줄이기 효과가 큰 수종인 동백, 황철, 대정금, 편백 등 100여 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 TV프로그램

23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SBS/KBC
[6]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광장	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10 걸어서 세계속으로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1부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생방송 오늘 아침	15 KBC 모닝와이드 35 모닝와이드 3부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15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2~3부	50 밥이 되어라(재)	35 불새 2020
[9]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45 KBS 뉴스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00 누가 뭐래도(재) 40 지구촌 뉴스	45 불발한 신년놀음 스페셜	10 SBS 뉴스 30 살맛 나는 오늘
[11]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재난탈출 생존왕 스페셜 50 불평해도 괜찮아 55 한국의 인류유산	00 달이 뜨는 강(재)		00 푸르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12	10 생생정보 스페셜(재) 50 박원숙의 같이 삼시다 3(재)	00 12 MBC 뉴스 20 와우와오 롤링프렌즈 50 뽀뽀뽀 친구친구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박미선과 돈뒤러 돈해피
[1]	00 시사기획 창(재) 55 나의 살던 고향은(재)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20 헬로키즈 글로벌 동물 뉴스 50 2시 뉴스 외전	55 덕터 365
[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2 30 KBS광주 열린마당(재)		25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초청 토론회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00 뉴스브리핑
[3]	35 미니다Q(재)	00 KBS 뉴스타임 1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30 이 맛에 산다	
[4]	00 사사건건	0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50 TV는 사랑을 싣고(재)	00 기분 좋은 날(재)	00 문화예술의 중심으로 떠나는 여행 55 덕터 365
[5]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도그래피	50 통합뉴스룸 ET	00 5 MBC 뉴스 15 출발! 비디오 여행 스페셜	00 SBS 오뉴스 35 KBC 저녁뉴스 50 특선다큐 생명의 신비, 지구
[6]	00 6시 내고향	30 2TV 생생정보	10 오매 전라도	50 덕터 365 55 최강 1교시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이웃집 찰스	50 미스 몬테크리스토	10 밥이 되어라 50 MBC 뉴스데스크	50 SBS 8 뉴스
[8]	30 누가 뭐래도	30 노래가 좋아		30 KBC 8 뉴스
[9]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	30 달이 뜨는 강	20 아무튼 출근	00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10]	00 시사토론 '10' 50 더 라이브	40 옥탑방의 문제아들	40 PD수첩	00 조선구마사
[11]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라인		35 100분토론	15 불타는 청춘
[12]	10 세계 물의 날 기념 KBS결작 다큐멘터리(재)	10 스포츠 하이라이트 35 통합뉴스룸 ET(재)		35 나이트라인

### EBS1

06:00 한국기행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30 티시태시
06:20 세계테마기행	12:00 EBS 정오뉴스	17:45 최고다! 호기심딱지
07:00 꼬마버스 타요	12:10 EBS 비즈니스 리뷰 플러스	18:00 생방송 토크! 보니 하니
07:15 출동! 슈퍼펄스	12:25 지식채널e	19:00 위 배어 배어: 곰 버라이어티
07:30 뽀로로와 노래해요	12:30 클래스 e	19:30 자이언트 팽TV
07:45 꼬마하이어 슈퍼팩	13:00 당신의 문해력	19:45 극한직업 스페셜
08:00 당동명 유치원	13:55 미래교육 플러스	20:35 아주 각별한 기행
08:30 두다다쿵	14:45 도라도라 영어나라	20:50 세계테마기행 1~2부
08:45 방귀대장 뽀뽀이	15:15 도전! 나도 과학자	<꼭 집어 꼭! 아시아-일본 핫아이도>
09:00 뽀롱뽀롱 뽀로로	15:45 용감한 소방차 레이	21:30 한국기행
09:15 핫도그랑 만들어볼까요	16:15 올리 맨 문	<어쩌다 미술관 2부 내 안의 미술관>
09:30 명탐정 피트	16:30 당동명 유치원(재)	21:50 당신의 문해력
09:40 우리집 유치원	16:50 해와와 해와	22:45 건축탐구 - 집
10:30 한국기행	17:00 EBS 뉴스	23:35 EBS 비즈니스 리뷰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20 마사와 곰	23:50 클래스 e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3월 23일(음 2월 11일 庚午) ☎ 010-9790-8237

<p>36년생 두루 살피는 것이 현명하다. 48년생 마음에 내키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전환하라. 60년생 기쁨이 조성 되면서 여러 가지가 처리 되는 형국이다. 72년생 공동 탐은 무너지지 않는 법이다. 84년생 자제로써 충분한 가치가 있음을 알라. 96년생 약화된 부분을 보완하고 진용을 정비해야 할 성국에 놓여 있다. 행운의 숫자 : 49, 57</p>	<p>42년생 모순이나 미비점이 보이거든 무시하지 마라. 54년생 본전만 찾기도 다행이니라. 66년생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자. 78년생 소식은 의외로 빨리 올 수도 있느니라. 90년생 어려움은 보이지만 맞서 불 만한 개입이다. 02년생 어느 정도 여유를 두고 실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19, 92</p>
<p>37년생 대화로써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동세이다. 49년생 견전한 습관의 반복이 성공의 길로 이끄느니라. 61년생 항상 잘 마무리하지는 않다. 73년생 예상했던 바보다 훨씬 복잡하고 난해해지겠다. 85년생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이익이 따를 수도 있는 판세이다. 97년생 턱이 쌓인다면 궁극적으로 감성을 부르리라. 행운의 숫자 : 29, 59</p>	<p>43년생 행운이 다가온다. 55년생 과감하게 청산 할 수 있는 용기가 절실히 요청된다. 67년생 오해받을 수도 있다. 79년생 생소한 것에는 조심해야 하느니라. 91년생 상당한 곤혹스러울 것이다. 03년생 방식이 변경 될 수도 있으나 기본적인 속성은 대동소이하다. 행운의 숫자 : 40, 55</p>
<p>38년생 양면성이 공존하고 있으니 감안하고 들어가야 한다. 50년생 낙관하기에는 시기상조임을 알아야 한다. 62년생 변동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되느니라. 74년생 지켜보고 있으면 걸로 드러나게 마련이니라. 86년생 대하기 부담스럽다면 피해야 하는 것이 낫다. 98년생 번거롭더라도 확인하는 습관이 실수를 줄여 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94, 75</p>	<p>32년생 극상의 정점에 와 있으니 완전히 몰입하라. 44년생 그 어느 경우에도 일정일단이 있음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56년생 한 번 마음먹었다면 그대로 조처하는 것이 맞다. 68년생 반복성에 속지 마라. 80년생 억지로나라도 실행해야 한다. 92년생 안정 계도로 진입했다. 행운의 숫자 : 12, 65</p>
<p>39년생 선인이 형성되어 발전적인 상황으로 작용하리라. 51년생 북방적이거나 다기능의 선택이 용이하다. 63년생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75년생 견인불발의 자제로 초지일관한다면 무난할 것이다. 87년생 안전에 관한 의식이 우선 되어야 한다. 99년생 길조가 보이니 세심하게 보라. 행운의 숫자 : 16, 62</p>	<p>33년생 무의식중에 행한 언행에 의해서 의외의 피해를 입지 않을까 우려된다. 45년생 착각을 일으킬 수도 있다. 57년생 분류를 잘 해둔다면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케 한다. 69년생 완전히 잊고 있었던 과거사가 문제점을 야기 하겠다. 81년생 지금은 내색할 때가 아니로다. 93년생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20, 78</p>
<p>40년생 바쁘게 뛰는 만큼 소기의 결실이 따른다. 52년생 사리에 밝은이의 충고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64년생 역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낫다. 76년생 주변을 너무 의심하다보면 목적을 이루기 어려운 법이다. 88년생 통제할 줄 알아야 완성될 것이다. 00년생 밤심하다가는 역장이 무너질 수도 있느니라. 행운의 숫자 : 06, 94</p>	<p>34년생 실속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46년생 확신을 가졌을 때 성공률이 높아진다. 58년생 결정적인 시기에 거의 압박했다. 70년생 수고로운 일이 드러나지만 쉽게 극복 될 수 있는 처지이다. 82년생 걱정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니 잘자고 있으면서 조처하라. 94년생 견뎌 낼 수만 있다면 대박이 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39, 76</p>
<p>41년생 냉철한 판단에 이르기 위해서는 해안이 필요하다. 53년생 변통한다면 불길 하리라. 65년생 별도의 관리가 이루어져야 마땅하다. 77년생 체면 때문에 내버려두면 불상사가 생길 것이니 적극 대처하라. 89년생 뿌리 대로 거들 것이다. 01년생 이로움이 전개 된다. 행운의 숫자 : 42, 54</p>	<p>35년생 분위기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47년생 상대에게 끌려 다니지 말고 적극적으로 주도해나가야만 하느니라. 59년생 돈이 결정적으로 좌우하게 될 것이다. 71년생 앞장기 어 벌어질 수도 있으니 대비 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83년생 난해하다면 원점으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보자. 95년생 듣기는 하되 개입할 필요는 없겠다. 행운의 숫자 : 23, 56</p>